

‘고객도 확진’ 순천, 은행발 확진자 7명...지역확산 우려

마스크 쓰고 칸막이 설치했지만 전파 광주선 교도소 직원·지인 3명 확진

신한은행 순천 연향지점(發)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초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직원·가족 등 6명의 확진자가 지난 주말·휴일에 쏟아진 데 이어, 휴일 밤늦게 은행 고객 감염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광주교도소 20대 직원과 그의 지인 2명 등 3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순천 거주 50대 남성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 196번 확진자다. 신한은행 순천 연향지점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코로나 19 검사를 권고하는 순천시 재난 문자를 받고 진단 검사를 받았다.

앞서 이 남성은 통장 재발급을 위해 지난 5일 오후 2시 10분부터 3시까지 신한은행 순천 연향지점을 방문했다. 해당 은행에서는 직원 4명(광주 517·518, 전남 194·195)과 직원 가족 2명(전남 192·193)이 잇따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이 은행 직원 31명을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을 제외한 27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은행 직원과 그 가족에 이어 고객 감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은행 CCTV를 통해 고객(전남 196)과 전파자로 지목된 은행 직원(광주 517번)이 비말 차단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둘 다 마스크를 쓴 채로 은행에서



9일 광주교도소 앞 주차장에서 광주 북구보건소 질병예방팀 방역원들과 일곡동행정복지센터 직원, 동방역원들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마주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하루 평균 200명 안팎의 고객이 직원들과 대면 접촉하면서 은행일을 봤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남 196번 확진자가 노점상을 운영하며 다수 시민을 접촉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전남 방역당국은 지난 3·6일 사이 해당 은행을 방문한 1000여명과 전남 196번이 운영한 노점상을 최근 방문한 100여명에 대해 전수 조사가 들어가는 한편 최초 감염자 및 감염 경로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역감염 연결 고리 차단에 역학조사관 8명을 투입, 감염 경로 특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장은 이어 “최근 환절기 감기 환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19와 감기를 오인해 지역감염이 확산할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광주교도소 직원 20대 남성과 지인 2명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도소 안팎이 술렁였다. 광주 520번 확진자로 분류된 이 남성에 의해 교도소 직원이나 수용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이날 추가 확진자 1명을 포함해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6명이다. 광주에서는 이날 해외 유입 사례 1명(광주 521), 지역사회 감염 2명(광주 522·523)이 생겨나면서 누적 확진자는 523명으로 늘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남도의 맛과 멋’ 전국에 알린다

전남도, 12일까지 ‘서울국제관광박람회’ 참가...관광콘텐츠 홍보

전남도가 9일부터 12일까지 ‘2020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 남도의 풍성한 가을·겨울 관광자원과 힐링 여행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선보인다.

서울 SETEC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200여개 업체가 참가하며, 관광홍보관 전시와 함께 언택트 여행 홍보, 관광세미나, 여행사·지자체 협력 상담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남도는 ‘남도의 맛과 멋’을 주제로 홍보관을 구성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남도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알리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이 여행하기 좋은 청정하고 안전한 지역임을 적극 알리고, 도내 각 지역의 관광정보와 특화된 관광콘텐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여행시장의 조기 회복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30일부터 운영중인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관광객들이 여행사의 국내 여행상품을 조기예약 또는 선결제할 경우 30% 할인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국 1112개 관광상품이 선정됐으며 이 중 전남은 292개



전남관광홍보 부스

(26.2%)로 전국 최다 선정된 바 있다. 또 남도 잔내투어, 힐링브릿지 여행 등 각종 관광콘텐츠를 비롯 남도한바퀴, 남도패스, 전남도여행 등 전남도만이 가진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집중 홍보하며,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퀴즈와 이벤트도 운영한다.

이광동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전남의 숨은 관광자원을 알리고, 잠재된 관광업계에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대나무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대나무 군락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나무는 식용과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족적 가치도 크다.

문화재청은 9일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대나무 군락지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cm의 왕대와 송대(323-8호), 원양(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갈뽕피, 줄, 물억새 등 야생동물의 서식처로서의 자연 학술 가치가 크다.

담양은 우리나라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할 정도로 대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부역실총’ 등 문헌에 따르면 담양의 공물로 가는 대·왕대·오죽·화살대, 죽·죽·죽·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생산됐다. 특히 고서인 ‘규합총서’는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를 쪼개뽕나무를 두어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



‘담양 대전면 태목리 대나무 군락’ 진입로

갓)을 지역의 명산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담양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을 비롯해 잡빛장, 낙죽장 등 대나무를 활용한 5개 종목의 지역 무형문화재를 포함해 보유자 6명이 활동하고 있다. 담양군도 ‘대나무 명인’ 제도를 통해 죽세공에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오랜 세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자연유산”이라며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 봉선동·수완지구

부동산 불법 거래 집중 단속

광주 일부 지역에 외지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11월 5일자 1면)과 관련해 광주시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봉선동, 수완지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추석 이후 외지 투자자 등이 봉선동, 수완지구 일대 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거래 가격을 올리고, 전세를 낀 ‘갭투자’로 전세가를 올렸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봉선동 아파트 평(3.3㎡)당 가격은 지난 6월 1503만원, 7월 1447만원, 8월 1548만원, 9월 1785만원으로 급등했다.

수완동은 같은 기간 1810만원, 1807만원, 1831만원, 1873만원 등 추세를 보였다. 광주시는 외지인 매수자,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거래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 무등록 중개 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 행위 등이다.

지난 6~7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투자 세력이 규제 지역인 서울, 경기 등보다 규제가 덜한 광주, 부산, 경기 김포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4471억원 지급

전국 19.7%...농업인 19만명

전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4471억원을 최종 확정하고, 10일부터 조기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전국 2조2753억원의 1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19만명(27만 5000ha)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며, 지난해보다 1.7배인 1900억원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7만8000명에게 927억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11만2000명에게 3544억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번 지급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했으며, 특히 중소규모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0.5ha 기준)는 12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의 경우 지난해 72만2000원에 비해 47만8000원이 증가했으며, 밭은 지난해 35만1000원보다 84만9000원이 증가했다.

면적직불금(3ha 기준)도 농업진흥지역 논·밭의 경우 592만5000원으로, 논은 지난해 432만9000원보다 159만6000원이 증가했으며, 밭도 지난해 210만9000원보다 381만6000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정자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코로나19와 함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해당 시·군을 통해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2020년 11월 10일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최정수(33022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평동로1119번길 25 101동 507호(송정동, 마이더스빌아파트)
피상속인 망 최정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단1268호로 신청하여 2020년 11월 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기 위하여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1월 10일

• 상속인 : 최갈봉(661015-XXXXXX) 위왕시 청제로 223-6, 201동 202호 (청계동, 아틀레스빌)
• 신고기간: 2020. 11. 10. ~ 2021. 1. 19.
• 채권신고처: 상속인 최갈봉의 주소

산행안내

11월17일(화)

▲광주 가고파트레킹 11월17일(화) 경남 고성 공룡탐험 해안 트레킹, 진월동식자재마트 앞 07:20분, 월드컵북문 배롱나무 다리엔 07:30, 한국병원 앞 07:40, 교원공예 앞 07:50, 문예회관후문 시내버스 승장 08:00 * 다음카페 광주 가고파트레킹 ☎ 010 6294 2678, 010 3821 9090

11월2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1월 21일(토) 거창 의상봉·우두산·비계산 Y자출렁다리, 봉선동롯데마트 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 앞 07:20, 연주체육관 앞 07:30, 한국병원 앞 07:40, 문예회관정문 앞 07:50, 비엔날레주차장 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1월22일(일)

▲광주자연보전탐사회 11월22일(일) 연석산-운장산(전북 완주), 연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출몰러스 07:2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탐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